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서울시 서초구를 중심으로 -

The Effect of Women's Participation Needs for Community Social Activities

- Focusing on Seocho-Gu, Seoul -

장 정 순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Abstract

Jung-Soon Jang

This research aims at contributing to activation of local social welfare by studying the factors which affect women's participation needs for community social activities. This research involves a survey conducted during a month from August 1st to August 31st, 2016 for 242 Seocho-Gu resident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s as well as residents through community centers. The survey focuses on effects of variables including socio-demographic factors, community satisfaction, cognition degree of social problems, and community attachment on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average number of participation in community social activities of the respondents is 2.44(SD = .095). For the effects of socio-demographic factors on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all the variables are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For the correlations among main variables,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is positively related to cognition degree of social problems($r = .244, p < .01$) and community attachment($r = .174, p < .01$). Based on these analyses on correlations, the effects on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by community satisfaction, cognition degree of social problems, and community attachment are the followings. Firstly, as a result of including community satisfaction variable in the model, its effect on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is not statistically meaningful. Secondly, as a result of including cognition degree of social problems variable in the first model, it explains about 6.8% factors of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Thirdly, as a result of including community attachment variable in the second model, it explains about 10.4% factors of participation needs of community social activities thus, additionally explaining about 3.6% statistically meaningfully.

주 제 어: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

Keywords: community social activities, community attachment, community satisfaction, cognition degree of social problems

* 본 논문은 2017년 신한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수행되었음.

I.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시설중심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장소일 뿐 아니라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동질적인 문화가 형성되기도 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하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권순도, 2013).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 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사회사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정치적 측면에서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함으로써 정치권 확대를 꾀할 수 있고,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부족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¹⁾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향상,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등이 제고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류기형, 2004).

이러한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 개인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 참여자들은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한 개인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김영범·이승훈, 2008; 김주현·한경혜, 2001; 배경희, 2013)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소영·이영순, 2014; 송용훈 외, 2015).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남성보다 사회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에게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가정 내에서 주로 자녀 양육이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가정 내에 사적인 일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정 밖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회적이고 공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민소영·이영순, 2014).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전업주부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김지연, 2003).

이와 같이 지역사회활동은 여성들 개인적으로는 심리적 안정이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1)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체와는 달리 사회복지조직은 자체적으로 자원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원적으로 자원부족 현상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은 자원부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을 발굴·연계하는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김근홍 외, 2014).

지역사회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까지 진행되어온 지역사회 활동 참여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일반시민(김중해, 1995; 이선미, 2003; 류기형, 2004; 곽현근, 2007; 김혜정, 2012; 배은석·박혜금, 2016)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다.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경우에도 결혼이주 여성(유정숙, 2012), 농촌지역 여성(박덕병 외, 2005), 한부모 여성(이인숙, 2012), 저소득 노인(이성은, 2013) 등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민소영·이영순(2014)은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결과로는 일반적인 여성의 지역사회참여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변수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적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지역의 일반여성들이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의 인식 정도,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요인을 요인들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지역사회활동 참여 개념

지역사회활동이란 지역사회라고 하는 지리적 공간 내에서 수행하는 사회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정의는 지역사회와 사회활동의 개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란 사람들이 모여살고 있는 곳이라는 장소적인 의미와 공통의 이해관계나 특성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학자에 따라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이들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지역사회란 동일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동질적인 사회적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독자적인 역사, 전통, 습관, 언어, 문화를 지니고 있는 곳, 일정한 인구 및 지리적으로 같은 지역에 사는 인구집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태희·전태숙, 2010).

사회활동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사회 및 조직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활동(social activity) 용어는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등과 혼용되고 있다. Maier와 Klumb(2005)는 사회참여를 사회활동보다 넓은 범주

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사회활동은 사회참여보다 하위 범주로 인식하면서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이 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이소정 외(2007)는 사회활동을 사회참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고 사회활동을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이나 형태를 띤 활동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와 사고”로 정의하였다.²⁾

따라서 지역사회와 사회활동이 혼합된 의미의 지역사회 활동은 가족 외적, 지리적 공간성,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비영리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 활동은 가족 외적인 특성을 지닌다. 가족외적 특성이란 가족 구성원이 아닌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과 활동하는 것(황정미 외, 2009)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활동이란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활동은 지리적 공간성이란 특징을 지닌다. 즉 지역사회 활동은 지역사회 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 활동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동네 조직을 중심으로 한 반사회, 부녀회, 학부모 조직회 등이 지역사회활동에 포함되기도 하고(곽현근, 2004), 좀 더 범위를 넓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자원봉사 활동, 후원 또는 결연활동, 주민자치 조직 활동, 정부지원활동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민소영·이영순, 2014). 셋째 지역사회 활동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지닌다. 즉 지역사회 구성원과 지속적 또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김영범 외(2008)는 상호작용의 성격에 따라 종교 활동, 여가활동, 공공단체활동, 연고 집단 활동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한경혜 외(2011)는 지역사회 활동의 동기에 따라 상호작용의 성격을 구분하였다. 그들은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동기를 자가지향 동기, 관계지향 동기, 사회지향 동기로 분류하고 참여 동기에 따라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자신의 여가선용, 개인적 성장, 삶의 만족 등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가지향 동기는 취미·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해 충족되고, 타인과 어울림으로써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하는 관계지향 동기는 친목단체 등을 통해 성취된다. 그리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지향 동기에 의한 활동은 마을 만들기, 환경운동, 정치참여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끝으로 지역사회활동은 비영리성이란 특징을 지닌다. 즉 지역사회활동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성은(2013)은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제외한 모든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이나 집단이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지역사회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활동을 가족 외적, 지리적 공간성,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비영리성이란 특징을 지닌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은 사회지향 동기를 성취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2) 본 연구에서는 사회활동, 사회참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고 이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나 가족구조, 거주기간, 경제적 특성 등 개인적인 변수를 측정 변수로 활용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 요인을 파악하였다(곽현근, 2004; 김익식·장연수, 2004; 김혜정, 2012).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지역사회활동 참여자들의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수준의 향상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 지향적 동기를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의의

앞 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활동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다양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 이론에 의하면 참여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타인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성재·장인협, 2008). 즉 지역사회활동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활동 참여로 인해 사회 구성원과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고립되지 않고 통합됨을 인지하게 되면서 사회·심리적 안녕감, 신체적 건강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Zimmerman and Rappaport, 1988; Christens et al., 2011). 이러한 관계성을 지니는 지역사회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Jang & Chiriboga, 2011)고 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서론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활동은 참여자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노인의 우울·불안감 해소(윤은경, 2015), 주관적 안녕감(김영범·이승훈, 2008), 자아존중감(김주현·한경혜, 2001), 사회적 관계의 확장(윤은경, 2015), 신체기능의 증진(박경혜, 이윤환, 2006), 심리사회적 적응력 향상 및 자살생각의 감소(이종경, 이은주 2010, 한경혜, 김주현, 2001, 김동배 외, 2012), 생활만족도(박창제, 2015)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도 사회·심리적 효과(곽현근, 2007), 집합적 효능감(곽현근·유현숙, 2007), 공동체 의식(김경준·김성수, 1998; 서재호, 2013), 지역사회 응집력(강대선·류기형, 2007), 지역사회 만족도(고순철, 1992)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지역사회활동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은영·김미강, 2013).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지역사회활동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활동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고, 농촌 여성독거 노인을 대상 연구(박정은·원영애, 1994)와 결혼이주여성 대상 연구(양순미 외, 2009; 김나영, 2007, 최규홍

외, 2009)에서는 지역사회활동을 통해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공동체 의식 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사회 활동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 등 돌봄 노동에 대한 책임이 과중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전업주부인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고립된 상태로 집안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나 사회관계 형성하는데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사적인 일을 수행하는 존재로 여겨지던 여성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가정 밖에서 사회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민소영·이영순, 2014). 또한 전업주부들은 실제로 주간에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사회 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많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정확히 진단하여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의 현안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거나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김지연, 2003; 최유진 외, 2014; 임혜경·안태운, 2016). 더욱이 지역 특성에 맞는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정책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활동은 여성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아실현이나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단적이고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과 지역사회 수준의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등이 있고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사회의 환경적 요인이 있다. 먼저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 연령, 결혼여부, 거주기간 등이 지역사회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익식·장연수, 2004; 곽현근·유현숙, 2007; 김혜정, 201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기혼자일수록 지역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참여자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종과 김혜정(2011)은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동기를 선별적 보상 동기와 집합적 보상 동기로 구분하면서³⁾ 지역사회 활동 참여자들은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혜택을 획득하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 뿐

3) 선별적 보상이란 활동 참여자만이 획득되는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혜택으로서 물질적 혜택, 사회적 관계, 심리적 만족감 등이 포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집합적 보상이란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주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혜택으로서 사회활동을 통해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한다. 전자를 이기적 동기라고 볼 수 있다면 후자는 이타적 동기에 해당된다.

아니라 타인이나 지역사회 등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타적인 동기도 지역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끝으로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제사회적 조건, 인구이동의 빈번함이나 구성원의 이질성 정도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민소영·이영순(2014)에 의하면 지역의 경제사회적 조건인 빈곤율은 지역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인구이동의 빈번함이나 구성원의 이질성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요인보다는 지역사회 전체 즉 공동체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따라서 이타적인 동기라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애착심과 지역사회 만족도를 포함한 지역사회 문제인식 정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수들의 검증에 위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지역사회 애착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사회와 애착도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애착이란 용어는 원래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존 보울비(John Bowlby, 1958)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의하면 애착은 아동기 초기에 아동과 양육자 사이에 형성되는 애정적 유대관계로서 한번 형성된 애착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후대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애착의 지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아동기 초기 뿐 아니라 인간 발달의 모든 단계에 걸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뿐 아니라 심리학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학, 환경심리학, 인문지리학 등의 다른 학문적 영역에서도 애착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왔다(McCool and Martin; 1994, 강신겸, 2002).

지역사회 애착도 역시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애착의 개념을 지역사회라는 장소적인 개념에 적용시킨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에 대한 애착과 그러한 공간을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친근감 또는 애정을 포함하고 있다. Stokols & Shumaker(1981)은 지역사회라는 공간에 대한 친근감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애착도를 환경과 인간 사이에서 지각되는 장소에 대한 귀속이라고 정의 하였다. Altman(1992)과 Hidalgo & Hernandez(2001)는 지역사회 애착은 단순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역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획득되는 감정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Altman(1992)은 지역사회 애착도란 사람이 환경에 대해 갖는 생각(thought), 신념(belief), 지식(knowledge)과 같은 인지적 요소가 행동과 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고(고동완·김현정, 2003에서 재인용), Hidalgo & Hernandez(2001)은 인간과 특정 장소 간의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 또는 연계라고 정의하였다. Gross와 Brown(2008)은 이들의 연구결과를 발전시켜 지역사회 애착도를 장소의존성과 장소정체성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장소의존성은 장소에 대한 기능적 애착심이고, 장소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상징적이고, 정서적인 애착심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볼 때 지역사회 애착도는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민들이 갖는 공동의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애착도는 의존성, 정체성, 사회적 친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최승담·강신겸, 2001). 첫째, 의존성은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만족시키는 특정 장소의 잠재력과 관련된 애착 유형으로 애착심의 기능적 측면을 포함한다. 둘째, 정체성은 개인이 특정 장소가 상징하는 것 때문에 특정 장소에 대하여 갖는 중요성 정도를 나타내며 감성적인 측면을 나타낸다. 셋째, 사회적 친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정보를 교환하며 개인적,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애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주로 관광, 문화,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는 실시되어 왔다. 관광분야에서는 지역사회애착도가 관광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실시되었는데 지역애착도가 관광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Jurowski et al., 1997; Williams, Anderson, McDonald & Patterson, 1995)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강신겸, 2001; 광용섭, 2003, Harrill, 2004; 박동균과 이운석, 2007; 최승담과 강신겸, 2011; 예상권, 2011)가 나타나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애착도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실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사회 애착도와 유사한 개념인 공동체 의식이 지역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⁴⁾ 공동체 의식이 강한 주민일수록 지역사회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Chavis and Wandersman, 1990), 공동체 의식의 하위 변인인 지역 관여도, 지역 친밀도, 정서적 유대감 등이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주요한 영향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영원, 2016). Omoto와 Packard(2016)도 공동체 의식은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선행 변인으로서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친사회적인 행동과 지역사회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애착도가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게 한다.

2) 지역사회만족도와 지역사회 문제 인식 정도

지역사회 만족도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갖게 되는 만족 정도라고 할 수 있다(이채식 외, 2007). 이러한 만족은 주관적 특성을 띠게 되는데 적극적인 측면에서 만족이란 지역사회에 대해 의식적이고 심리적인 행복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만족이란 지역사회에 대한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영숙 외, 2004).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나 만족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ampbell &

⁴⁾ 공동체 의식이란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며 타인이나 집단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는 것으로, 구성원간의 헌신을 통해 구성원의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으로 정의된다(서재호,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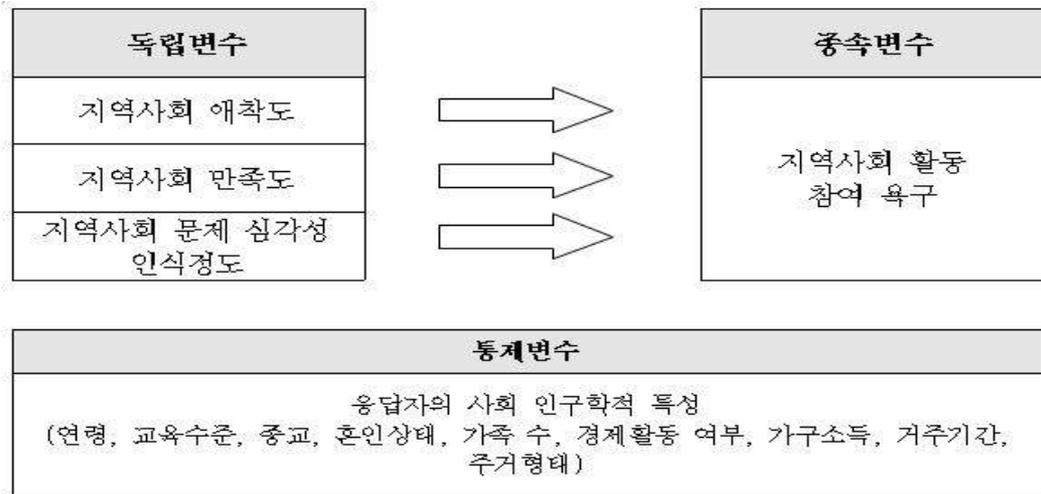
Converse, 1976; Rojek et al, 1975; Deseran, 1978; Ladewig & McCann, 1980). 그들에 의하면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사회서비스의 적절성, 주민의 사회적 관계성, 지역사회 환경적 속성과 환경에 대한 개인적 경험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순철(1992)은 지역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측정하여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는 이웃과의 관계, 성인교육기회, 쓰레기 처리, 우편 및 전화 이용 기회 등을 지역사회서비스의 객관적 서비스 요인으로, 계획적 삶, 종교기회, 지역사회 내 여가 공간, 시장기회, 주민들의 법질서, 취업 기회 등을 서비스의 이용 기회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Brown(1993)은 개인의 태도나 행동 변수에 의해 지역사회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른 지역사회와의 비교 평가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전 상황과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만족도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도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김명국 외(2000)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정은 사회문제를 개념화하는 문제인식 단계, 인식된 문제를 경험하는 진단단계, 그리고 진단된 문제를 처방하는 행동의 단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출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관점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Ginsberg(1994)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은 객관론적인 관점과 주관론적인 관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객관론적 관점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건이 지역주민에게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사회문제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을 지닌 연구자들은 사회문제의 원인과 예방, 문제를 촉발시키는 본질, 인구의 변화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이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공적 관심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관론적 관점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주의를 끌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지역주민이 이러한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Blumer, 1971). 이러한 접근방법에도 객관적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문제인식 과정이나 우선순위 등을 과정에서 개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김명국 외,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응답자의 심각성 인지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수가 지역사회활동에 참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이고 독립변수는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인식의 심각성 정도이다.



<그림 1> 분석 모형

2. 연구가설 설정

본 연구는 종속변수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이고 독립변수는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인식의 심각성 정도이다. 이러한 변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 애착도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역사회 만족도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조사 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1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1개월간) 서초구 거주 여성 총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초구 인구 순위 및 여성회관 이전 입지 지역을 중심으로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방배동,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등 9개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역의 주민 센터에 설문지를 배치하고 주민자치위원과 주민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설문지배포와 수거는 서초여성회관의 '든든 청년 인턴활동'에 선정된 대학생 6명이 실시하였는데 인턴 대학생에게 설문조사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한 뒤 설문조사에 투입하였다.

2)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크롬바 알파(Cronbach's alpha)를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지역사회애착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문제 인식 정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역에 애착도, 지역사회만족도,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 욕구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및 신뢰도 검증

1) 종속변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지역사회 참여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귀하는 어떤 유형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라는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기타를 포함하여 9개의 지역사회 활동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지역사회활동 유형은 환경보호, 마을공동체 만들기, 안전한 사회 만들기, 바른 먹거리 지원, 문화재능 나눔, 사회취약계층 지원, 자녀의 교육지원, 여성정치가 지원,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9개의 지역사회활동은 이승종과 김혜정(2011)이 제시한 사회 지향적이고 이타적인 동기를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사회 활동을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응답자 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활동 수에 의해 참여욕구를 측정하였다. 즉 9개의 문항에 모두 응답한 경우 참여 욕구가 가장 높고(9점) 한 곳에도 표시

하지 않은 경우 참여 욕구가 가장 낮은 것(0점)으로 처리하였다.

2) 독립변수: 지역사회 애착도

지역애착도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연대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는 Williams et al(1995)와 Kasarda and Janowitz(1974), Moore and Graefe(1994)의 연구를 바탕으로 강신겸·최승담(2001)이 한국인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한 지역애착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은 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 수는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 애착도 척도는 Cronbach's $\alpha = .70$ 이상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1〉 지역사회 애착도 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하위 요인	문항수	문항내용	신뢰도
정체성	5	삶의 큰 부분, 자신을 설명, 지역에 대한 지식, 지역을 자랑스러워함, 자신에게 특별한 지역	.746
의존성	7	일하기에 적합한 지역, 살기 좋은 지역,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 생활의 중심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 싫음,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 친인척들이 거주하는 지역	.712
사회적 친분	3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음, 친목모임에 적극적인 참여, 지역사람들과 친분관계 유지함.	.847
전체	15		.834

3) 독립변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

지역사회 만족도는 Brown(1993)이 제시한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 중 다른 지역과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대상자에게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살기에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항목을 제시하였고 평정척도를 사용하여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10점,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할 경우 1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는 Ginsberg(1994)이 제시한, 주관론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사회문제로, 공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따르고자 하였다. 또한 김명국 외(2000)가 제시한 지역사회문제 해결과정은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로부터 출발된다는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에 질문 항목은 보건복지부 외(2014)의 『제3기(2015-2018)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메뉴얼』에 제시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항목을 참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복지시설 부

족, 의료시설 부족, 환경오염, 안전문제, 주거환경 문제, 빈부격차문제, 차별문제, 이웃과의 관계 문제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는 리커트(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4) 통제변수: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혼인상태, 가족 수, 경제활동 여부, 가구 월평균 소득, 지역사회에서 거주한 기간, 주거형태 등 총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들은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되었고 그 중에서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 소득, 거주 기간 등이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나타났다(김익식·장연수, 2004; 곽현근·유현숙, 2007; 김혜정, 2012).

IV. 분석결과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37.2%(9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는 50대 22.3%(54명), 30대 20.2%(49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20대(7.0%)와 60대 이상(13.2%)은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학교(전문대학)졸업이 74.1%(177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석사과정 이상)이 15.9%(38명),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10.0%(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대부분(88.1%)이 대졸 이상으로 서초구 여성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종교별 분포를 살펴보면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80명)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 30.3%(73명), 천주교 22.0%(53명), 불교 12.4%(3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혼인상태별 분포는 유배우가 80.4%(189명)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미혼이 16.1%(39명)로 나타났고, 별거/사별/이혼은 3.0%(7명)에 불과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혼(1.7%), 사별(0.9%), 별거(0.4%) 순으로 나타나 사별이나 별거에 비해 이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4인 가족이 45.8%(11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3인 가족 23.3%(56명), 2인 가족 11.3%(27명), 5인 가족 8.8%(21명) 순으로 조사된 반면 1인 가족은 7.5%(18명)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81.2%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3인 이상의 가구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 가구원수 2.59명보다 연구대상자의 가구원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7).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백분율
연령	20대	17	7.0
	30대	49	20.2
	40대	90	37.2
	50대	54	22.3
	60대 이상	32	13.2
	계	242	100.0
교육수준	고등학교 졸업	24	10.0
	대학교(전문대 포함)졸업	177	74.1
	대학원 졸업(석사과정 이상)	38	15.9
	계	239	100.0
종교	기독교	73	30.3
	불교	30	12.4
	천주교	53	22.0
	종교 없음	80	33.2
	기타	5	2.1
	계	241	100.0
혼인 상태	유배우	189	80.4
	별거/사별/이혼	7	3.0
	미혼	39	16.6
	계	235	100.0
가족 수	1명	18	7.5
	2명	27	11.3
	3명	56	23.3
	4명	110	45.8
	5명	21	8.8
	6명 이상	8	3.3
	계	240	100.0
경제 활동	비경제활동	99	42.7
	정규직	82	35.3
	비정규직	40	17.2
	기타	11	4.7
	계	232	100.0
가구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1	6.5
	200만원~400 미만	31	18.3
	400만원~600만원 미만	69	40.8
	600만원 이상	58	34.3
	계	169	100.0
거주 기간	10년 미만	96	42.3
	10년~20년 미만	69	30.4
	20년 이상	62	27.3
	계	227	100.0
주거형태	아파트	160	67.5
	다세대/빌라	59	24.9
	단독주택	12	5.1
	상가 등 기타	6	2.5
	계	237	100.0

경제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안 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42.7%(9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정규직이 35.3%(82명), 비정규직(아르바이트)이 17.25%(40명), 기타가 4.7%(11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가구 월평균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40.8%(6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이 600만원 이상이 34.3%(58명)로 나타난 반면 200만원 미만은 6.56%(11명)에 불과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5.2%가 월평균 400만원 이상의 가구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국 평균 가구소득(459만원)보다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통계청, 2017).

거주기간 별 분포를 살펴보면 10년 미만이 42.3%(9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10년~20년 미만이 30.4%(69명), 20년 이상이 27.3%(62명)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 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67.5%(16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빌라/다세대가 24.9%(59명)로 나타났고 반면에 단독주택은 5.1%(12명), 상가 2.5%(6명)등은 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초구민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다.

2. 주요변수들의 특성

1) 지역사회 활동 욕구에 대한 기술 통계

지역사회 참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활동 유형 수는 평균 2.44(SD=.097)개로 나타났고 최대 6개, 최소 1개의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의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38.6%(9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3개 32.0%(77명), 1개 16.62%(40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5개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2.1%(5명)에 불과하였다.

〈표 3〉 응답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지역사회 활동 유형 수	빈도	백분율
1	40	16.6
2	93	38.6
3	77	32.0
4	26	10.8
5	4	1.7
6	1	.4
합계	241	100.0

2) 지역사회 애착도의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 대상자들의 지역사회 애착도 수준은 <표 4>와 같다.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3.24(SD=.074)로 “보통이다(3.00)”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애착도의 하위변인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정체성의 평균점수는 3.29(SD=0.84), 의존성의 평균점수는 3.39(SD=0.76), 사회적 친분의 평균점수는 3.04(SD=0.98)로 나타나 의존성 점수가 가장 높고 사회적 친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문항 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내생활의 많은 부분이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평균점수 3.70, SD=. 91), “내가 사는 서초구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평균점수 3.66, SD=1.02)의 문항이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나는 서초구민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평균점수 2.78, SD=1.16)의 문항 점수는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문제 중 이웃과의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인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요인명	질문항목	평균	표준편차
정체성	내가 사는 서초구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3.66	1.02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위해 서초구에 산다고 얘기한다.	2.77	1.18
	누가 서초구에 대해 묻는다면 나는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	3.24	1.01
	내가 서초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3.37	1.04
	서초구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3.42	1.01
	정체성 요인 평균	3.29	0.84
의존성	서초구는 지금 내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3.66	0.92
	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서초구가 살기 좋다.	3.63	0.97
	서초구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3.49	0.93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이 서초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3.70	0.91
	서초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면 매우 섭섭할 것이다.	3.54	1.04
	다른 곳으로 떠날 기회가 생긴다 해도 서초구에서 계속 살겠다.	3.16	1.14
	서초구에는 친인척들이 많이 살고 있다.	2.57	1.31
	의존성 요인 평균	3.39	0.76
사회적 친분	나는 서초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3.25	1.06
	나는 (서초구민)친목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78	1.16
	나는 서초구지역 사람들과 친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10	1.09
	사회적 친분 요인 평균	3.04	0.99
지역사회 애착도 전체 평균		3.24	0.74

3)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지역사회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1점 불만족하다’에서 ‘10점 만족하다’까지 10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측정 결과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점수 7.37점(SD=1.63)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 만족도 점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8점이 27.5%(6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7점이 25.3%(58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도가 낮은(1-4점) 집단은 4.3%(10명)에 불과하였고 만족도가 높은 8점 이상은 50.2%(115명)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10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6%(22명)로 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5〉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만족도	빈도	백분율
2점	2	.9
3점	4	1.7
4점	4	1.7
5점	20	8.7
6점	26	11.4
7점	58	25.3
8점	63	27.5
9점	30	13.1
10점	22	9.6
전체	229	100.0

지역사회 문제 인식 심각정도를 측정 결과는 〈표 6〉과 같다.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평균 점수는 2.68점(SD=.62)으로서 “보통이다(3.00)”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서초구 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이웃과의 의사소통의 부재”로 평균점수는 3.06(SD=.95)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나눔과 배려 부족 문제”로 평균점수는 3.01(SD=.95)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장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평균점수 2.34 SD=1.07), “범죄, 치안문제”(평균점수 2.38, SD=.86)로 나타났다.

〈표 6〉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N=526)

항목	평균	표준편차
세대 간의 갈등과 불이해	2.69	.90
여성의 사회참여 저조	2.52	.81
청소년비행 및 학교폭력	2.48	.80
쓰레기 분리 수거, 매연 등 환경오염 문제	2.84	.98
범죄, 치안문제	2.38	.86
공원 및 휴식공간의 부족	2.61	1.06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2.34	1.07
교양 및 문화활동 공간 부족	2.55	1.00
이웃과의 소통 부재 문제	3.06	.95
나눔과 배려부족 문제	3.01	.95
기타	2.88	1.09
전체	2.68	.62

주: 리커트 5점 척도(5점: 매우 심각하다, 4점: 심각하다, 3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4.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

1)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요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는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정도($r = .244, p < .01$), 지역사회 애착도($r = .174, p < .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사회 애착도의 하위 변수인 정체성($r = .174, p < .01$)과 사회적 친분($r = .183, p < .01$)은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지역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가 높고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을 경우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와 지역사회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지역사회만족도와 지역사회 애착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r = .432, p < .01$),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310, p < .01$). 즉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는 높아지는 반면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와 지역사회 애착도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사회 애착도의 하위 변수인 의존성은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r = -.180,$

p<.01).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문제의 심각성을 강하게 인지할 경우 지역사회 애착도 중 의존성 즉 서초구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자 하는 의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요인 명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지역사회 애착도	정체성	의존성	사회적 친분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	1						
지역사회 만족도	.049	1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244**	-.310**	1				
지역사회애착도	.174**	.432**	-.119	1			
정체성	.174**	.356**	-.070	.890**	1		
의존성	.120	.483**	-.180**	.922**	.719**	1	
사회적 친분	.183**	.230**	-.017	.781**	.586**	.591**	1
평균	2.44	7.37	2.68	3.30	3.30	3.41	3.06
표준편차	.97	1.63	.61	.74	.85	.77	.99
N	241	229	242	242	242	242	242

*p<.05, **p<.01

2) 지역사회 애착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문제 심각성 인식정도, 지역사회 애착도로 분류하여 회귀분석 선형성 모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형성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사회만족도,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지역사회 애착도의 세 가지 군으로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설명하기 위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세 가지 모형 중 첫 번째 모형은 지역사회만족도 변수를 통하여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모형은 첫 번째 모형에 투입한 지역사회만족도에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만족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정도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모형이다. 최종모형인 세 번째 모형은 두 번째 모형에 지역사회 애착도를 포함시켜 지역사회만족도와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지역사회애착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3가지 모형의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회귀분석 시 DW(Durbin Waston)계수로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DW계수(DW 값 2 기준)가 1.785로 잔차가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 변수

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VIF값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모든 변수의 VIF값이 1.34 이하고 VIF 기준 값 10을 넘지 않아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형 1은 지역사회만족도 변수를 투입하였는데 분석결과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를 투입하였는데 지역사회만족도($\beta=.133$),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beta=.270$)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8.207, p<.01$).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두 변수는 전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변량의 약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R^2=.068$), 모형2는 모형 1보다 설명력이 .066증가하였다($F\ Change=15.844, R^2\ Change=.066$).

끝으로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사회만족도,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지역사회 애착도 변인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beta=.272$), 지역사회 애착도($\beta=.21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변량의 약 1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2=.104$). 모형3에서 지역사회 애착도 변수, 모형2 보다 설명력이 .036 밖에 증가되지 않았다($F\ Change=9.082, R^2\ Change=.036$).

〈표 8〉 지역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종속변수로 하는 위계적 회귀 분석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변수(군)	B	β (베타)	t	B	β (베타)	t	B	β (베타)	t
지역사회 만족도	.029	.049	.731	.079	.133	1.969*	.025	.042	.575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423	.270	3.980***	.426	.272	4.082***
지역사회애착도							.280	.212	3.014**
F	.535			8.207			8.695		
F Change	.535			15.844			9.082		
R ²	.002			.068			.104		
R ² Change	.002			.066			.036		

* $p<.05$, ** $p<.01$, *** $p<.0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를 통해 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의 수준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 지역사회 애착도 변인들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지역사회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서초구에 거주하는 여성 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활동 참여하고자 하는 활동 유형 수는 평균 2.44개(SD=.097)로 응답자들이 평균 2개 이상의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 7.37점(SD=1.63)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편이고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평균 점수는 2.68점(SD=.62)으로서 보통(3.00 점)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애착도에 대한 전체 평균점수는 3.24점(SD=.074)으로 보통(3.00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해볼 때 서초구 여성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지역의 문제 심각성은 낮게 느끼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애착도는 역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역의 빈곤율과 공동체 의식이 제시되었으나(민소영·이영순, 2014) 본 연구 결과는 지역의 빈곤율이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나 애착도가 높고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가 대부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수한 인적 자원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의 차이를 검증해본 결과 모든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혼자일수록, 교육 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활동 참여가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김익식·장연수, 2004; 박현근·유현숙, 2007; 김혜정, 2012; 민소영·이영순, 2014)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 결과가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응답자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88.1%)이고 기혼상태(80.4%)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4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75.2%)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나타내는 9개의 변수 중 교육수준, 결혼상태, 경제수준이라는 3개의 변수가 매우 동질적인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에 의한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 욕구는 독립변수인 지역사회 애착도($r = .174, p < .01$)와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r = .244, p < .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지역사회 만족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 대부분이 지역사회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10점 만점에 평균 점수 7.37점)에 지역사회 만족도 점수 자체가 응답자 별로 변별력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역사회 만족도는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와 부적 상관관계($r = -.310, p < .01$)

가 있고 지역사회 애착도와는 정적 상관관계 ($r = .432, p < .01$)에 있는 것을 고려해볼 때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에 따라 지역사회 만족도, 지역문제 심각성 인식정도, 지역사회 애착도 변인들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만족도 변수를 투입한 결과 지역사회 만족도가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모형에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지정도를 투입시킨 결과 전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변량의 약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이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 욕구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김명국(2000)은 해결과정은 사회문제를 개념화하는 문제인식 단계로부터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문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 즉 지역사회 활동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두 번째 모형에 지역사회애착도 변인을 투입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역사회활동 참여 욕구 변량의 약 10.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약 3.6% 정도 추가적인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 활동 참여욕구는 지역사회 문제 인식 더불어 지역사회 애착을 지닐 경우 증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역사회활동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타적이고 사회지향적 동기에 의해 촉진된다(한경혜 외, 2011)는 연구결과나 공동체 의식에 의해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서재호, 2014; 민소영·이영순, 2014; 이영원, 2016)는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 활동참여에 대한 지역사회 문제 심각성 인식정도와 지역사회 애착도의 설명력은 약 10.4%로 그다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일정 정도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만족도나 지역사회 애착도가 높고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지역 내 저소득층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의 여성들의 사회참여도가 활발하였다는 민소영·이영순(2014)의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이질적이고 사회문제의 인식정도가 좀 더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내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문제의 심각성 인식정도는 지역사회 활동 참여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지역은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웃과의 의사소통 부재, 나눔과 배려의 부족 등을 지역사회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뿐 아니라 주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지역 주민 포럼이나 제안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역사회 애착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애착도는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지역사회 문제 인식의 심각성 정도와 함께 10.4%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애착도 중 사회적 친분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친분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면 지역사회 애착도 뿐 아니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내 주민조직화 방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조직 활동을 통해서 지역 여성들의 지역 내 영향력은 물론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졸이상의 여성들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지역사회 활동 조직을 육성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경제적 수준이 높고 대졸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보상 없이도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비확률표집인 편의표집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또한 서초구의 9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 또한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조사 결과는 지역사회 내에 유희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졸 중년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확인하였는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대선·류기형. (2007).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응집력과 지역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9(1): 27-53.
- 강신겸. (2001). 한국사회 갈등구조에 대한 이해. 「농어촌관광연구」, 8(2): 179-191.
- 최승담·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 203-133.
- 강신겸·최승담. (2002). 관광지 지역주민의 지역사회 애착도 측정척도 개발. 「관광학연구」, 26(1): 103-117.
- 고동완·김현정. (2003). 지역사회 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27(3): 97-114.
- 고순철. (1992). 「제주도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곽용섭. (2005). 지역주민의 장소애착심에 따른 관광지 평가에 관한 연구. 「호텔리조트카지노연구」, 4(2): 511-525.
- 곽현근. (2004). 동네조직 참여의 영향요인 및 심리적 효과. 「지방정부연구」, 8(4): 381-405.
- 곽현근. (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참여의 영향요인과 사회심리적 효과.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1): 145-170.
- 곽현근·유현숙. (2007).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과 집합적 효능감: 충북 청원군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1): 347-376.
- 권순도. (2013). 「도농복합 도시의 불균형발전 원인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와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준·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 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23(2): 211-.
- 김동배·신상범·신수민. (2012). 무배우자 노인의 사회참여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32(1): 289-303.
- 김명국. (2000). 지역사회문제의 인식과 접근방법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7(0): 227-248.
- 김보경. (2013). 컨벤션개최지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개발연구」, 12(2): 157-172.
- 김선경. (2011). 「중년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경. (2011). 「중년여성의 사회참여와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범·이승훈. (2008). 한국 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서울 및 춘천 노인을 대상으로. 「

- 한국노년학」, 28(1): 1-18.
- 김익식·장연수. (2004). 지역사회 정치문화 및 주민참여에 관한 경험적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4): 31-49.
- 김중해. (1995). 「도시지역 지역사회행동의 주민참여요인에 대한 연구 부천시 조례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주현·한경혜. (2001). 노년기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존중감. 「한국노년학」, 21(2): 217-219.
- 김지연. (2003). 「여성의 지역운동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연대를 중심으로」,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12). 지역사회시민의 참여활동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6(2): 213-240.
- 김흥렬·윤설민. (2007). 프로스포츠 연고지역 주민의 팀 충성도와 지역애착도의 영향관계 및 연관성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9(4): 187-205.
- 류기형. (2004). 지역사회복지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확대방안. 「사회복지연구」, 13: 35-65.
- 민소영·이영순. (2014). 지역사회 환경이 여성의 지역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판사회정책」, (43): 207-235.
- 박경혜·이유환. (2006). 노인의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2): 275-289.
- 박동균·이은석. (2007). 지역사회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스포츠 소비행동과 지역사회 애착도의 관계.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2): 57-74.
- 박병덕. (2009). 농촌관광 마을주민 지역사회애착심 영향요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20(2): 247-262.
- 박정은·원영애. (1994). 「초기노인여성의 사회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박창제. (2015). 고령자의 주요사회참여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사회보장연구」, 31(2): 157-184.
- 배경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1: 33-54.
- 배은석·박해금. (2016). 도농복합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73-199.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4). 「제 3기(2015-2018)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 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송용훈·김용희·정문기. (2015). 마을만들기에서 참여동기에 따른 주민참여가 유대감 및 신뢰에 미치는 영향 성미산 마을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4): 99-128
- 양순미·최규홍·강경하. (2009).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742.

- 예상권. (2011). 「애착도와 공동체의식이 슬로우시티 지역주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라대 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유정숙.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원봉사 참여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0): 103-137.
- 윤은경. (2015). 독거노인의 우울, 불안감과 사회참여와의 관계에 미치는 지역사회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노인복지연구」, 70(0): 223-244
- 이선미. (2003). 시민참여로서의 자원활동 참가의 동기와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1): 111-144.
- 이성은. (2013). 저소득 노인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학회지」, 24(3): 343-354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 2007(0): 0-0
- 이승중·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영원. (2016). 지역공동체의식이 지역사회 참여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19(1): 389-415.
- 이인숙. (2012). 한부모 여성의 공동체 적응 과정과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39(4): 1~30.
- 이종경·이은주. (2010). 노인의 여가스포츠 활동참가와 스트레스 및 자살생각 감소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레이션 학회지」, 34(3): 17-26
- 이채식 외. (2007). 농촌청소년의 지역사회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래청소년학회지」, 4(1): 19-36.
- 이태희·전태숙. (2010). 「지역사회복지론」, 서울: 창지사.
- 임혜경·안태운(2016).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활성화 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장인협·최성재. (2008).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영숙·이혜현. (2005). 농촌여성들의 지역사회조직 참여 결정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16(3): 97-107.
- 조영숙·황대용·박은식·고정숙. (2004).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만족도와 지역공동체 의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5(4): 113-125.
- 최규홍·양순미·강경하. (2009). 연구논문: 결혼이주여성의 농촌 사회참여활동 실태 및 이에 따른 생활만족도 변화 -농업·지역사회·취업활동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6(4): 713.
- 최승담·강신겸. (2001). 지역사회 애착도의 구성요인에 관한 개념적 고찰: 관광개발에 대한 시사점.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20): 203-133.
- 최유진·문희영·김양희(2014). 「여성친화도시 조성단계별 추진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경혜. (2011). 도시지역 연소노인들의 사회참여와 동기 요인간의 관련성. 「한국노년학」. 31(4):

1189-1208.

- 한아름·김여진. (201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활동 . 문화적응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75-104.
- 한은영·김미강. (2013).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거주 지역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43(0): 95-124.
- 황정미·문경희·양혜우·정승희.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증진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ltman, I. (1992). *Place attachment: A conceptual inquiry*. New York: Plenum Press.
- Blumer, H. (1971). Social Problems as Collective Behavior. *Social Problems*. 18.
- Bowlby, J. (1958). *Attachment and loss. Vol1: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own RB. (1993). Rural community satisfaction and attachment in mass consumer society. *Rural Sociology*, 58(3): 387-403.
- Brehm, JM. & Eisenhauer, BW . & Krannich, RS. (2004). Dimensions of community attachment and their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the amenity-rich rural west. *Rural Sociology*, 69(3): 405-429.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NY: Russell Sage.
- Chavis , D , M. & Wandersman, A. (1990). Sense of community in the urban environment: A catalyst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ty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8(1): 55-81.
- Christens, B. D. Peterson, N. A and Speer, P. W. (2011). Community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 Testing reciprocal causality using a cross-lagged panel design and latent constructs. *Health Education & Behavior*. 38(4): 339-347.
- Deseran, F. (1978). Community Satisfaction as Definition of the Situation: Some Conceptual Issue. *Rural Sociology*, 43(2): 235-249.
- Ginsberg, L. (1994). *Understanding Social Problems. Policies and Programs*.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Gross, M. & Brown, G. (2008). An empirical structural model of tourists and places: progressing involvement and place attachment into tourism. *Tourism Management*, 29(6): 1141-1151.
- Harrill, R. (2004).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Development: A Literature Review with Implication for Tourism Planning. *Journal of Planning Literature*, 18(3): 251-266.
- Hidalgo, MC . & Herna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 Jang, Y. & Chiriboga, D. A. (2011). Social Ac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 American Older Adults The Conditioning Role of Acculturation. *Journal of Aging and Health*, 23(5): 767-781.
- Kasarda, J. D. & Janowitz, M. (1974). Community attachment in mass socie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9: 328-339.
- Ladewig, H. & McCann, G. C. (1980). Community Satisfaction: Theory and Measurement. *Rural Sociology*, 45: 110-131.
- MaCool, F. & Martin, S. R. (1994). Community attachment and attitudes to war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32(3): 29-34.
- Maier, H. & Klumb, P. L. (2005). Social Participation and Survival at Older ages: Is the Effect Driven by activity Content or Context?. *European Journal of Ageing*, 2: 31~39.
- Moore, R. L. & Graefe, A. R.(1994) . Attachment to recreation settings: the case of rail-trail users. *Leisure Science*, 16: 17-31.
- Omoto, A. M. & Packard , C. D. (2016). The power of connections: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s a predictor of volunteerism.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6(3): 272-290.
- Rojek, D. C. & Frank, C. & Gene, C. (1975). Community Satisfaction: A Study of Contentment with Local Services. *Rural Sociology*, 40(2): 177-192.
- Stokols , D. & Shumaker . S. A. (1981). A transactional view of settings. people in place. *Hillsdale*, New York: Erlbaum: 481-488.
- Williams , D. & Scott Anderson, Mcdonald C. D. and Petterson M. E. (1995). Measuring place attachment: More preliminary results. *Paper presented at the NRPA Symposium on Leisure Research*, San Antonio . TX.
- Zimmerman, M. A. & Rappaport, J. (1988). Citizen participation, perceived control,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5): 725-750.

접수일(2017년 07월 21일)

수정일(2017년 08월 24일)

게재확정일(2017년 08월 28일)